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Weekly Marke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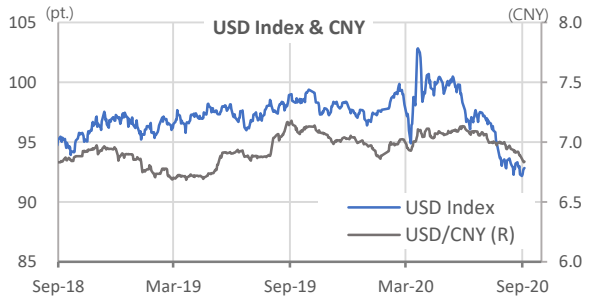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Sep 7, 2020

Weekly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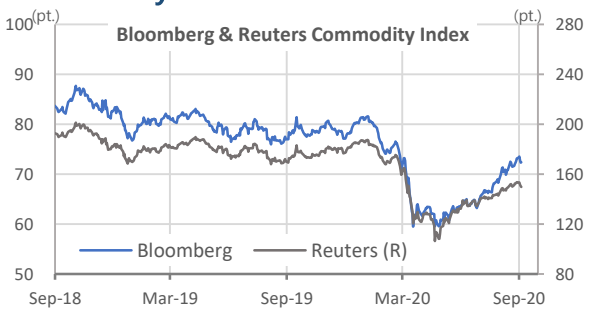
Drybulker	기대 가득 / 실속 부족
Tanker	원유선 계선 포인트 인접
Container	터닝 포인트 9월, 시작은 강세(중추절 전후 수요 방향성 관심 증대)
Sale & Purchase	신조시장 거래 부진, 선가 하락세 지속

Foreign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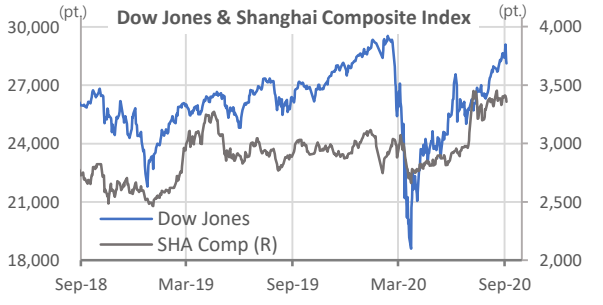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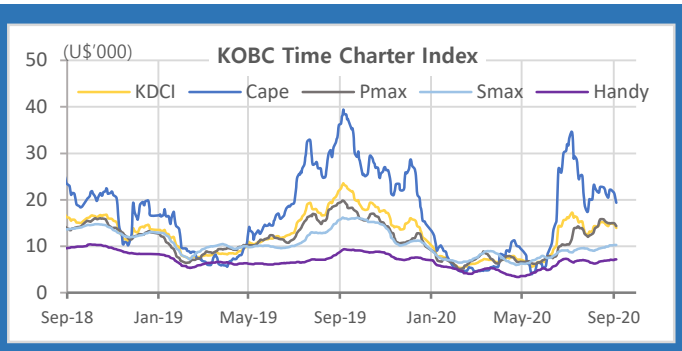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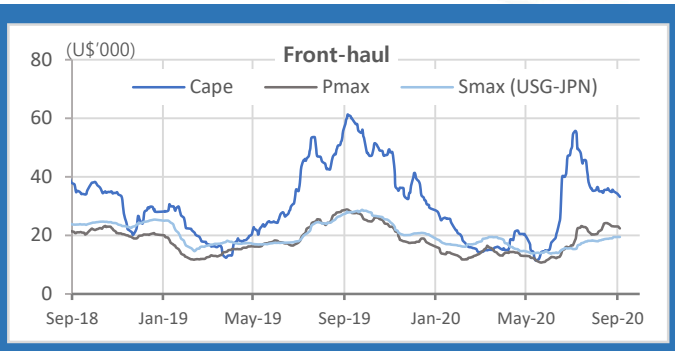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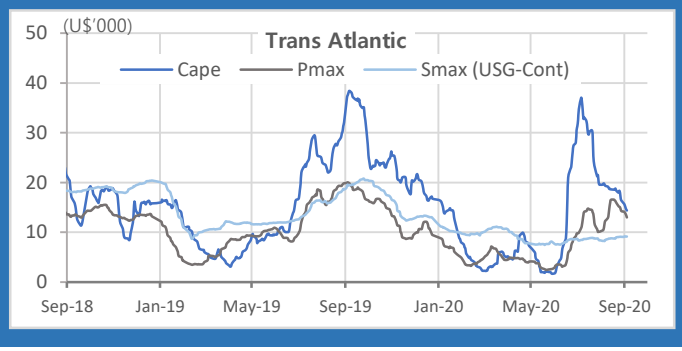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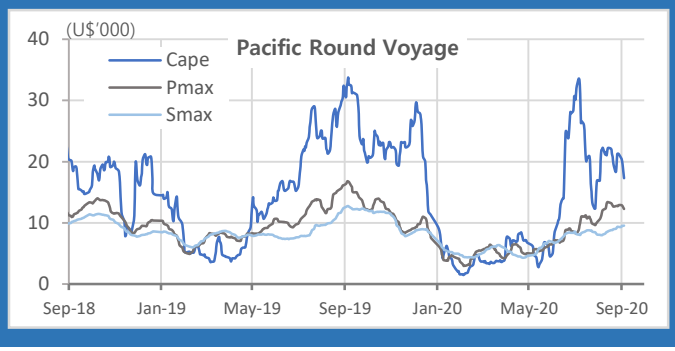


본 리포트는 해운시황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KDCI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금 주	13,929	19,378	33,188	14,375	17,313	14,338	22,350	12,980	12,275	10,318	19,438	9,150	9,545
전 주	14,910	22,168	34,875	16,338	21,250	14,958	23,020	14,220	12,908	10,213	19,425	9,088	9,329
증 감	▼ 981	▼ 2,790	▼ 1,687	▼ 1,963	▼ 3,937	▼ 620	▼ 670	▼ 1,240	▼ 633	▲ 105	▲ 13	▲ 63	▲ 216

(Cape) 철광석 수요 부진에 따른 전반적 하락세 지속

◦ 중국의 철광석 수요 정체 및 철광석 양하 완료 선박들의 시장 유입 증가로 하락세
- 중국 내 건설용 철강 수요 회복 지연으로 철강 재고량 증가 / 가격 약세 지속
- 북중국 탕산 지역에 대기오염 저감조치가 실시된 점도 철광석 수요를 압박

◦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 능력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점도 물동량을 제한 중
- 8월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3,133만톤 / 전월 대비 7.8%,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

◦ 중국 최대의 휴일인 국경절 연휴가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 9월 중 중국의 산업활동 활성화 및 원자재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함
- 그러나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호조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 PMI는 47.0으로 하락하는 등 엇갈리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주의 요망됨

(P'max) 북유럽 선박 공급 증가가 대서양 전역을 압박

◦ 북유럽 T/A 화물 유입 부진이 지속되며 대서양 내 선박 공급이 증가하자, F/H 항로까지 하락 압력이 전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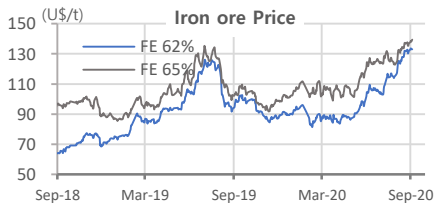
◦ 남아공과 콜럼비아의 석탄 화물 공급 차질도 대서양 내 수급을 악화시킴
- 남미향 Ballaster를 1차 소화하는 남아공 석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소하자, 선박들이 브라질까지 항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남미 F/H 항로 하락 압력 가중
- 지난주 초부터 콜럼비아 최대의 석탄광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대서양 내 선박 수요를 압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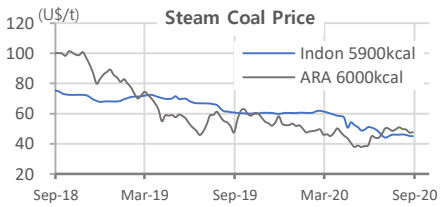
◦ 남아공의 석탄광 운영은 서서히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화물 유입 증가 및 남미향 선박 공급 감소 예상
- 중국이 대두, 옥수수 등 곡종에 상관없이 미국산 곡물의 구매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운임 시황에 긍정적 요인
- 그러나 콜럼비아 탄광 파업은 아직 종료 시점이 예상되지 않아 당분간 대서양 선박 수요 위축은 불가피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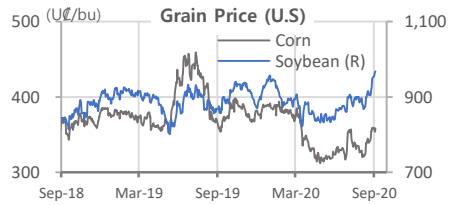
(S'max) 수역간 반대의 상하 방향성 전환

◦ 주초 잠시 지지받던 대서양은 파나막스의 부진 지속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약보합세를 이어가던 태평양은 주 후반 저점을 확보하는 모습

◦ 통상 인디아의 몬순 시즌이 종료되는 9월 말이 가까워지며, 인디아향 석탄 화물에 대한 트레이딩이 증가한 점이 태평양 수역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향 석탄 수요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석탄發 수급 개선은 제한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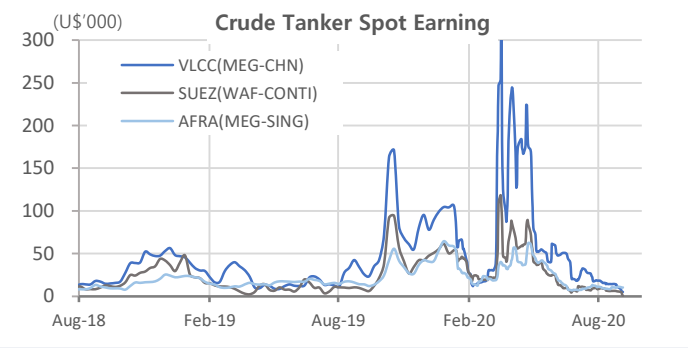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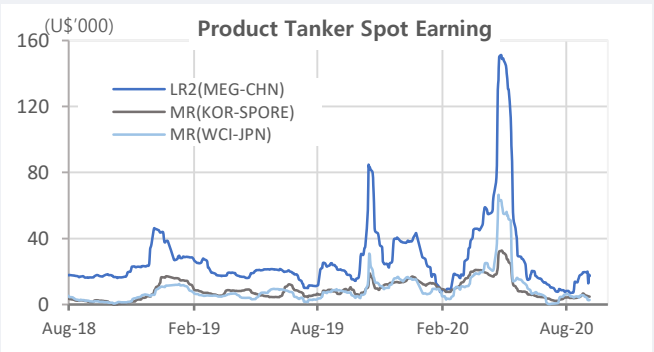
Crude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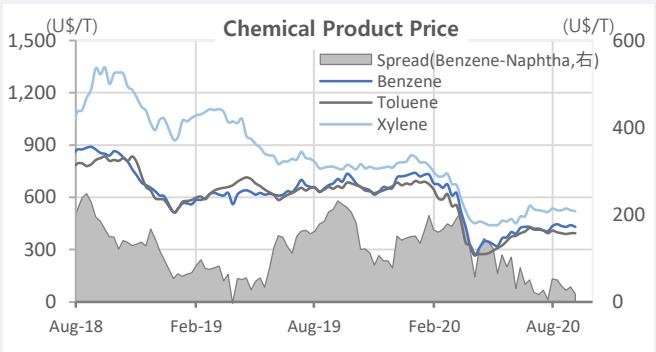


◦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장기화로 약세장 지속
- VLCC, Suezmax의 일 수익력이 선박의 계선을 검토해야 하는 수준까지 하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화물확보 경쟁 지속으로 낙폭 확대됨
- 동북아 지역 태풍 영향으로 MR 선박들의 일정 지연이 발생하며 시황 지지요인으로 작용 / 하락폭 축소
- 일본 7월 원유 수입량 209만 Bpd로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 이는 1967년 이후 최저치.
-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 재제 가능성이 언급됨 (Reuter). 아직 가능성 수준이나, 현실화될 경우 시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oute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i.)		Aframax (MEG-SPORE)	
WS	24.75	▼ 4.88	33.86	▼ 9.32	67.78	▼ 3.16
일수익	4,971	▼ 5,639	420	▼ 5,086	10,242	▼ 867

Product Tanker & Chemic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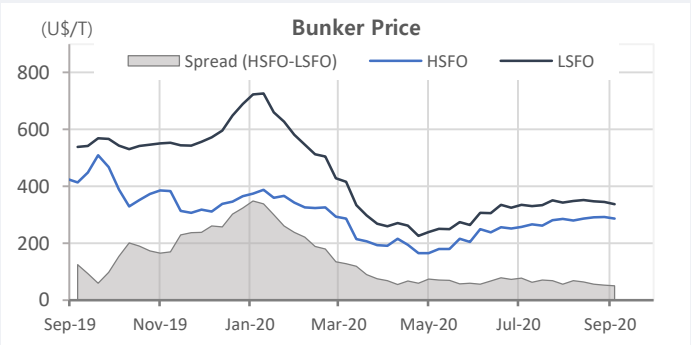
LR2	MEG-CHINA	
WS	87.86	▼ 8.21
일수익	17,234	▼ 2,339

MR	KOR-SPORE	
$/Ton	7.52	▼ 0.72
일수익	4,800	▼ 979

Price	Benzene		Toluene		Xylene	
$/Ton	430	▼ 10	395	- 0	520	▼ 5
Spread*	18	▼ 16	-17	▼ 6	108	▼ 11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Bunker Price



◦ (국제유가) 코로나 19 확산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및 석유공급 과잉 우려로 하락
-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2,700만명 (전주대비 ▲200만명, 일일확진자 : 인도 9만명, 미국 4만명, 브라질 3만명)
- 미 주요 증시 급락 및 경기 부양책 협상 난항
- 미 정제시설이 지난주 허리케인 이후 가동률을 줄이며 유지보수에 돌입. 원유수요 감소 우려

◦ (연료유가)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유가 하락, 수요는 소폭 증가, Spread $50/mt 유지

구 분	WTI (U$/bbl)	HSFO (U$/mt)	LSFO (U$/mt)	Spread (U$/mt)
Price	39.77	286.50	337.00	50.50
증 감	▼ 3.20	▼ 5.50	▼ 8.00	▼ 2.50

※ *Singapore 기준, 전 주 대비 증감*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lobal Market Focus*

운임지수(SCFI) / 용선지수(HRCI)

항로별 운임지수

항로	금주	전주	+/-	'20평균	+/-
美서안	**3,758**	3,639	▲ 119	2,169	▲ 1,589
美동안	**4,538**	4,207	▲ 331	3,073	▲ 1,465
유럽	**1,042**	1,029	▲ 13	874	▲ 168
지중해	**1,082**	1,060	▲ 22	959	▲ 123
동남아	**148**	132	▲ 16	171	▼ 23
중동	**909**	837	▲ 72	803	▲ 106
호주	**1,250**	1,213	▲ 37	978	▲ 272
남미	**2,223**	1,878	▲ 345	1,264	▲ 959
日서안	**231**	231	-	228	▲ 3
日동안	**238**	238	-	240	▼ 2
한국	**118**	118	-	120	▼ 2
동서Africa	**2,937**	2,837	▲ 100	2,795	▲ 142
남Africa	**1,217**	1,064	▲ 153	863	▲ 354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용선 성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A	3개월	4,900	▲ 400	8월4주
피더 1,100	A	8개월	6,800	▲ 1,000	8월4주
피더 1,600	A	3개월	8,000	▲ 700	8월4주
피더 2,200	A	4개월	11,500	▲ 3,000	8월3주
피더 2,700	A	6개월	11,000	▼ 1,400	8월4주
내로우빔 5,000	A	12개월	14,000	▲ 2,000	8월3주
와이드빔 5,500	A	7개월	18,000	▲ 300	8월4주
중형 7,000	A	6개월	22,800	▲ 1,300	8월3주
중형 9,000	A	23개월	22,500	▲ 6,500	8월3주

*A : '04년 이후 / B : '00~'04년 / C : '00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시장 동향

◦ (종합) 36주차(8.31~9.4) SCFI 종합지수는 '1,321p'로 전주 대비 '58p' 상승, 악천후(극심한 장마, 계속되는 태풍 등)로 중국 내륙, 항만 물류가 주춤하는 모습이나 원양항로 중심의 탄탄한 물량에 더해 중추절 이전 조기 선적 물량이 더해지며 수요 강세

◦ (미주항로) 미·중간 정치적 갈등이 상존함에도 불구 양국 간 컨테이너 화물의 실물 경제활동(수출입)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활발하게 진행. 한편 계절적 비수기(중추절 연휴 수요 감소)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사들이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가용 선복량 증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최근 이슈화된 '운임 인상을 위한 선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감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

◦ (유럽항로) 급격한 바이러스 재확산(9월 초 일일 확진자 증가 : 프랑스 5,000명, 독일 1,500명 상회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20.5월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유럽 경기의 '두 번 째 충격파와 경제활동 침체 우려'가 증대되는 양상

◦ (연근해/기타) 빈 컨테이너의 원양항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장거리 항로(남미, 중동 등)에 가용 컨테이너 부족에 따른 운임 상승 효과 발생. 한편 방역용 고무제품의 원료 생산지인 동남아 마켓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

주요 뉴스

◦『독일 정부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 독일 내 전기자동차 '19년 이후 2년 연속 가파른 성장세』*(KOTRA – 2020.8.28)*
- 독일 사회 전체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신형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자동차세 납부 유예 등)에 힘입어 독일 내 전기자동차 수요(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 : '19년 연간 63,281건, '20.7월 누계 61,105건)가 급증하는 추세. 한편 독일의 자동차 평균 연수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노후화되어(약 9.6년) 잠재적 교체 수요 충분한 상황

◦『중추절 대비 유럽항로 임시 결항 계획 발표 개시, 원양 선사들 수요 증감에 민감한 대응 지속』*(알파라이너 – 2020.9.2)*
- 디(THE)얼라이언스와 2M은 '중추절 수요 감소를 대비하여 10월 중 공급량 일부를 감소할 계획(임시 결항)'이라 발표. 원양 선사들은 '의도적 공급 감소로 운임을 높인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20.9월 초 가용 선복량을(북미항로 : '20.5월比 ▲26.0%, 전년 동월比 ▲6.7% / 유럽항로 : '20.5월比 ▲17.6%, 전년 동월比 ▼4.0%) 보면 무턱대고 공급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팬데믹 여파, 오히려 중국엔 글로벌 공급망 내 대표 공급지로서의 위상 강화 기회로 작용』*(뉴욕타임즈 – 2020.8.31)*
- 올 해 2분기 부터 시작된 원양 구간 위주의 컨화물 수요 증가는 중국발 화물이 증대된 것('20.7월 당월 중국발 화물량, 역대 월 처리량 2위 기록)이 핵심인 것으로 조사. 중국은 여러 부정적 상황(타국과 정치적 갈등 고조,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 가속 등)에도 수출 경쟁국(베트남, 태국 등)의 더딘 회복과 북미와 유럽의 수요 회복 영향으로 '부동의 1위 수출국' 위상을 강화하는 모습

※ 자료 : 상해항운교역소, Howe Robinson, 주요 전문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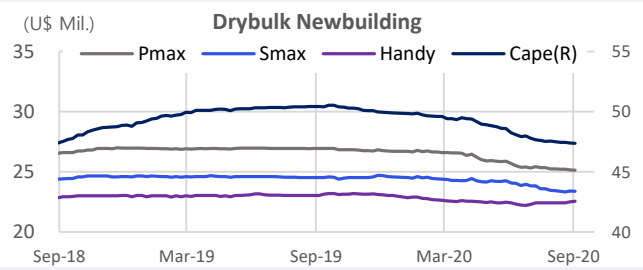
Sale & Purc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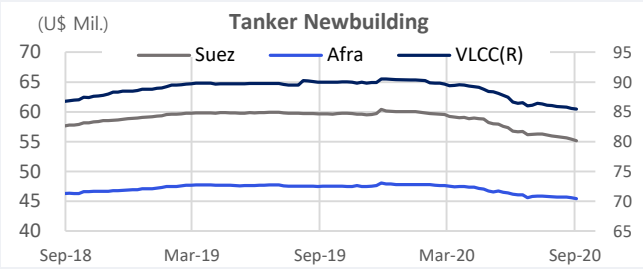
S & P

- 신조시장 거래 부진, 건화물 핸디선 제외한 전 선형 신조선가 하락세 지속
- 유조선 시황 하락세 장기화 영향 받으며 신조선 및 중고선 가격 하락세 지속
- 건화물 중고선시장 P'max 이하 중소형선 위주 선박 6척 거래 성약
- 폐선시장 인도지역 해체선가 회복세 주춤하였으나 전반적인 분위기 회복세 유지

Newbuilding & Resale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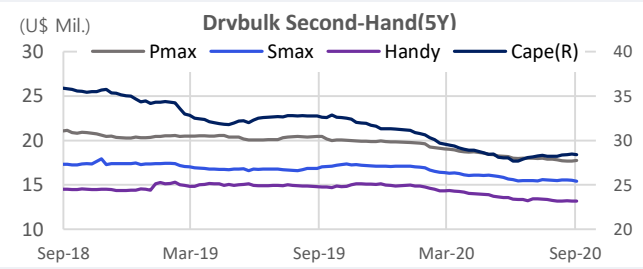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47.36	▼ 0.05	48.67	50.13	48.19	▲ 0.03	48.84	50.61
	P'max	76-82K	25.13	▼ 0.03	25.97	26.90	25.04	▼ 0.02	25.94	26.92
	S'max	56-61K	23.39	▼ 0.01	24.08	24.58	24.78	▼ 0.07	25.15	25.57
	Handy	32-37K	22.55	▲ 0.03	22.53	23.06	20.99	-	21.65	22.69
Tanker	VLCC	310K	85.47	▼ 0.10	88.00	89.79	90.96	▼ 0.40	96.80	94.60
	Suezmax	160K	55.16	▼ 0.23	57.84	59.75	60.63	▼ 0.22	65.98	64.82
	Aframax	105K	45.40	▼ 0.17	46.70	47.59	48.80	▼ 0.29	52.17	4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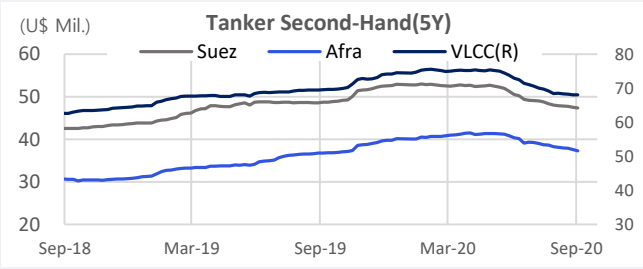




Secondhand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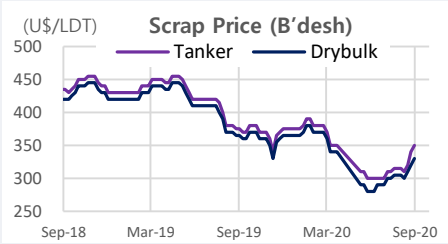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28.41	▼ 0.05	28.88	32.56	18.68	▲ 0.06	19.26	22.77
	P'max	76-82K	17.76	▲ 0.06	18.50	20.26	12.00	▲ 0.06	11.95	12.96
	S'max	56-61K	15.40	▼ 0.11	16.00	16.99	9.49	▼ 0.08	10.52	12.33
	Handy	32-37K	13.19	-	13.85	14.97	7.49	▲ 0.07	7.76	9.88
Tanker	VLCC	310K	68.10	▼ 0.03	73.00	69.28	46.18	▼ 0.54	49.56	45.69
	Suezmax	160K	47.36	▼ 0.19	51.02	48.51	32.41	▼ 0.39	34.80	31.79
	Aframax	105K	37.34	▼ 0.28	40.06	35.55	25.23	▼ 0.04	27.89	23.52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Bulker	320	▼ 10	329	387	330	▲ 10	325	398
Tanker	340	▼ 10	342	397	350	▲ 10	337	408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MS

KOBC Panelists

KOBC Drybulk Panelists

ILDO	Ildo Chartering Corp.	JS	Jangsoo Shipping Co., LTD.	Flaship	Flaship PTE. LTD.	M	Maritime Shipbrokers Co., LTD.
ds DAESANG SHIPPING	Daesang Shipping Co., LTD.	BASIM	Basim Chartering Corp.	MB MAX-BRIDGE	Max-Bridge Co., LTD.	长城国际海运有限公司 GREAT WALL INTERNATIONAL MARINE LIMITED	Greatwall International Marine LTD.
ACE	Ace Chartering Corp.		Kaya Shipping Co., LTD.	INTERLINK SHIPBROKERS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Optima International Shipbroking Services Shanghai
m.t CHARTERING & AGENCY	M.I.T Chartering & Agency Co., LTD.	GOOD TURN Since 1969	Good Turn Transportation LTD.		Evershine Consulting CO., LTD.		
海星航运有限公司 OCEAN ROBIN	Ocean Robin Shipping Holding Corp.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Gyro Maritime Co., LTD.	FOS	Foro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CO., LTD.	Hanwon Maritime Co., LTD.	PIONEER SHIPBROKERS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Fides Corp.	HARVEST	Harvest Shipbrokers PTE. LTD.
Kims	Kims Maritime Co., LTD.	GMS Leadership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Co., LTD.	SIMPSON | SPENCE | YOUNG	SSY London
HAIDELY SHIPPING LIMITED	Haidely Shipping	STL	STL Global	HIT	HIT Marine Company LTD.	RKR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Presco International	RKR	Reshamwala Shipbrokers	NEO	Neostar Maritime	SIMPSON | SPENCE | YOUNG	SSY London
KOEL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Co., Ltd.	Nav Maritime	SEOUL LINE Bene Factum - Good Deed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Unico Logistics	PACTRA	Pactra International	EUNSAN	Eunsan Shipping & Aircargo CO LTD.	EURO LINE GLOBAL CO., LTD	Euroline Global
TRADLINX	Tradlinx						